‘있는 정보 제시’라 말할 수 있을까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⑬ 국어사전은 불교를 어떻게 말하나(2)
‘절’ 아래 쌓인 말들



온라인 사전 〈우리말샘〉 국어사전에 등재된 절 관련 속담들 가운데, 절을 수행과 자비, 지혜와 깨달음의 공간으로 그린 말은 하나도 없다. 대신 헛수고와 엉뚱한 요구, 욕심과 탐욕, 주견 없는 행동과 복종, 적막과 쇠락, 심지어 파괴의 장면이 반복될 뿐이다. 개별 속담이 무엇을 풍자했는가와 별개로, 이 속담들이 한데 모이는 순간 절은 그 모든 부정적 사건이 벌어지는 어두운 배경으로 변모한다. 이미지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뜻풀이를 지나 화면 아래로

지난 글에서 〈우리말샘〉 국어사전이 ‘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봤다. 절은 ‘집’으로 풀이돼 있고, 예문 속에서는 특정한 날에 방문하고, 불안할 때만 기대며, 새벽부터 밥을 먹는 공간으로 그려졌다. 틀린 말은 없지만 절을 바르게 보여주지도 못한다. 이 뜻풀이와 예문 속에는 수행과 배움, 재가 신도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의 모습은 없다.

화면을 조금 더 내려보면 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온라인 사전은 뜻풀이와 예문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표제어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동의어나 반의어, 옛말, 사진, 속담과 관용 표현 등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아서 보여준다.

‘절’의 표제어 아래로 내려가면 관련 속담들이 연이어 나타난다. 모두 13개다. 이용자가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한 화면에 모여 자동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노출되는 속담들은 ‘절’에 대한 인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런데 이 속담들이 그려내는 풍경이 심상치 않다.

속담이 보여주는 ‘절’

속담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경험과 통념이 굳어진 역사적 언어 자료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서 지울 수는 없다. ‘절’ 관련 속담 역시 대부분 절이나 불교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사람의 어리석음과 욕심, 처세를 빗대어 말한다. 문제는 개별 속담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여 제시되는가에 있다.

속담 하나를 따로 읽을 때와 열세 개를 연이어 읽을 때의 효과는 전혀 다르다. 이 속담들 가운데 절을 수행과 자비, 지혜와 깨달음의 공간으로 그리는 말은 하나도 없다. 대신 헛수고와 엉뚱한 요구, 욕심과 탐욕, 주견 없는 행동과 복종, 적막과 쇠락, 심지어 파괴의 장면이 반복된다. 개별 속담이 무엇을 풍자했는가와 별개로,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절은 그 부정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공통의 어두운 배경이 된다.

시주는 헛수고로, 출가는 변덕으로

첫 장면은 “절 모르고 시주하기”다. 힘만 들이고 아무런 공도 나타나지 않는 일을 비유한 속담이다. 불교의 중요한 실천인 시주가 여기서는 보람 없는 수고를 나타내는 말이 된다. 그 아래에는 “절에 가서 젓국 달라 한다”가 놓인다. 젓국이 있을 수 없는 절에서 그것을 찾듯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두 속담이 비판하는 것은 절이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화면에는 시주가 헛수고가 되고, 있을 리 없는 것을 찾는 장소가 된 ‘절’이 남는다.

이어 “절에 가면 중노릇하고 싶다”, “절에 가면 중 되고 싶고 마을에 가면 속인 되고 싶다”, “절에 가면 중 이야기 촌에 가면 속인 이야기”가 연달아 나온다. 남이 하는 일을 덮어놓고 따르거나 장소에 따라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을 풍자한 말이다. 속담이 겨누는 대상은 절도 승려도 아닌, 주견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세 속담이 모이면 출가와 중노릇은 오랜 숙고와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남을 보고 문득 기분 따라 하고 싶어지는 일이 된다. 즉 수행자의 삶이 변덕과 모방을 설명하는 재료로 바뀌는 것이다.

적응에서 복종으로, 수행에서 잇속으로

다음에는 “절에 가면 중이 되라”와 “절에 가면 중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가 이어진다. 환경에 맞추어 살고, 어느 곳에 가든 그곳의 방식을 따르라는 뜻이니 세상살이의 적응과 예절에 관한 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절에 간 색시”는 분위기가 다르다. 자기 뜻과 관계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적응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어느새 복종과 타율의 장면으로 옮아간다. 그 속에서 절은 개인의 뜻을 펼치는 곳이라기보다 정해진 규칙과 타인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맞추어야 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절에 간 색시’는 한 번 더 등장한다. “절에 간 색시 재에는 뜻이 없고 재밥에만 눈이 간다.” 마땅히 해야 할 일보다 잇속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둔다는 뜻이다. 비판받는 것은 의례보다 잿밥을 탐하는 사람이지만, 화면에는 수행이나 공덕보다 먹을 것과 잇속에 마음을 빼앗긴 장면이 보태진다.

온라인 우리말샘 ‘절’ 관련 속담 13개 수록
수행·자비, 지혜·깨달음 공간 묘사 없이
헛수고·탐욕·맹종·쇠락·파괴 장면 반복
인간의 허물·곤란 설명 위해 동원된 배경
‘사찰’·‘사원’서도 종교 공간 모습 안 보여

“절에는 신중단이 제일이라”는 복이나 벌을 줄 수 있는 이가 가장 높다는 뜻이다. 부처님을 모신 불단이 있는 절에서 왜 신중단을 ‘제일’로 꼽았을까. 신중은 불법을 지키는 존재지만, 이 말에서 ‘제일’의 기준은 복과 화를 좌우하는 힘이다. 절에서도 수행의 뜻보다 현실의 복과 화를 앞세우는 태도를 은근히 풍자한 말이다.

마침내 절은 잠기고, 망하고, 불탄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화면은 더 거칠어진다. “절에 쇠 건 것 같다”에서는 인기척이 사라진 절에 자물쇠까지 걸린다. “절이 망하려니까 새우젓 장수가 들어온다”에서는 일이 안되려니 괴상한 일까지 생긴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이번에는 ‘절’이 망해버린다. “절은 타도 빈대 죽는 게 시원하다”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던 것이 사라지는 통쾌함을 말하기 위해 결국 ‘절’이 불타는 장면까지 동원된다.

물론 ‘절’을 불태우거나 없애자는 뜻은 아니다. 그저 적막한 상황, 일이 망해 가는 형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싫은 것을 없애고 싶은 마음을 비유한다. 대부분의 속담에서 직접 풍자되는 것도 절 자체라기보다 사람의 어리석음이나 욕심, 처세와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 편의 속담에서 배경이었던 장소가 여러 번 되풀이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배우는 계속 바뀌지만 무대는 언제나 ‘절’이다. 헛수고를 할 때도, 엉뚱한 것을 찾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고 잇속을 탐하며 남이 시키는 대로 할 때도 ‘절’이 불려 나온다. 마지막에는 그 절이 적막해지고, 망하고, 불탄다. 속담이 풀어놓은 열세 가지 장면에는 예불하는 사람도, 법문을 듣는 사람도, 수행하는 사람도 없다. ‘절’은 그저 인간의 허물과 곤란을 설명하기 위해 볼품없이 불려 나온다.

옆 말에 가도 달라지지 않는 풍경

‘절’을 바르게 설명해 주지 않는 문제는 ‘절’ 한 항목에서 끝나지 않는다. 절을 달리 이르는 ‘사찰’이나 ‘사원’으로 옮겨 가도 비슷한 풍경이 되풀이된다. 이 두 표제어 모두 “집”으로 풀이되어 ‘절’과 뜻풀이가 똑같다. ‘사찰’은 ‘절’을 비교적 격식 있게 부를 때, ‘사원’은 역사적·학술적 맥락이나 외국의 사찰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지만, 이런 차이는 사라지고 개인적 거주 공간인 ‘집’이라는 정의만 똑같이 반복된다.

이들의 예문도 마찬가지다. ‘사찰’의 예문에는 휴가 때 방문하는 관광 장면과 심지어 “유명무실한 사찰들을 폐사시켜라”라는 소설 속 문장이 이 단어의 쓰임을 대표하는 예로 소개돼 있다. ‘사원’에는 고려시대 사원이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다는 문장과 해외여행 중 사원을 찾아갔다는 문장이 제시된다. 관광과 폐사, 전근대의 경제 운영과 여행 중 방문은 보이지만 수행·예불·법회·교육·사회적 기여라는 종교 공간의 현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사전 속에 보이는 ‘절’의 풍경이다.

사전이 만든 얼굴

뜻풀이와 예문, 속담을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문제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았는가에 있다. 사전은 단순히 사실을 쌓아 두는 창고가 아니다. 어떤 뜻으로 설명하고, 어떤 예문을 대표로 세우고, 어떤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 묶어 보여주는지에 따라 한 단어의 얼굴을 만들어낸다. 한쪽의 모습만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그것이 단지 ‘있는 정보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짓이 없다고 해서, 진실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2026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규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따른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처 02-2011-1980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신청 자격

1.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30일(금)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하반기분 12월 지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분한신고 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
4. 지역 또는 사찰 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국민연금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1인당 월 38,950원(정액)이며, 현재 38,95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불기2570(2026)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유 정